

# 序 文

慶尙道 安東 땅은 安東金氏의 發源地입니다. 그리고 安東의 옛 이름은 古昌입니다.

우리 安東金氏의 始祖 太師公께서는 古昌城主로 제쳤습니다.

그런 까닭에 本書의 表題를 古昌備攷로 붙이게 되었습니다. 副題가 說明해 주듯이 安東金氏 祖上들의 歷史를 엮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要約해서 安東金氏 名賢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古昌에 깊이 뿌리박고 繁榮을 거듭해 온 安東金氏일진겐 그 핏줄을 이어받은 사람이라면 “나”라는 것에 관한 來歷을 반드시 알아둘 必要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社會生活를 營爲함에 있어 작게는 鄉土史와 國史, 크게는 東洋史와 世界史, 그리고 各種分野의 歷史를 배워 나가며 또한 알리는 努力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自己自身에 관한 “나”의 歷史에 대하여는 지극히 等閑視하고 있으며 또한 알아볼 機會조차 적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의 存在와 來歷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편입니다. 아뭏든 最少限度의 常識的인 程度만이라도 알아 둘 必要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必要가 있다기 보다 꼭 알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 古昌備攷는 엮어져 나온 것입니다. 우리 安東金氏의 始祖 太師公을 비롯한 여러 祖上들께서 얼마만큼의 榮光된 業績을 남겨 놓았나를 두루 살펴보며 同時에 그 슬기롭고 훌륭한 얼을 본받아 나가야 할 줄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道理와 義務가 아니라. 모름지기 우리는 그 좋은 遺風들을 모든 行動의 指針과 左右銘으로 삼아가면서 各自의 矜持를 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仁和를 이룩하며 社會의 참다운 役軍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本書의 編纂原則은 첫째 西紀 1959년에 刊行된 安東金氏世譜에 바탕을 두었고, 둘째 收錄基準을 故人에 限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原則에 따라 資料蒐集을 했고 原稿作成을 서둘러 왔습니다. 처음으로 作成된 原稿를 整理하고 다시 다듬어서 또 손질하는 등 그러기를 수없이 되풀이 했습니다.

이와같이 緻密한 過程을 거쳐서 다져진 原稿를 活字化시킨 것이 바로 古昌備攷입니다. 5年餘의 오랜 時間과 努力을 들인 結果 보시는 바와 같은 四六倍判 700頁에 達하는 어엿하고 큰 冊이 이루어 졌다는 것도 아울러 알려 드립니다.

內容은 극히 簡略하고도 明瞭하게 記錄했습니다. 官職과 行蹟別로 無慮 257個分野에 걸쳐서 分類했으며 收錄한 延人員數도 3,590이라는 많은 분이 對象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官職과 行蹟등의 分類에 있어서 正確性을 期하려고 最善의 努力을 다 했습니다 만은 先後가 잘 맞지 않고 是正할 餘地가 많은 未熟한 點이 적지 않다는 것도 率直히 是認합니다. 특히 孝行 學行 德行面의 分類에 있어서는 옛글에 「修身齊家해야 治國平天下할 수 있다」는

말이 있다싶이 옛날 높은 벼슬에 오른 분 치고는 孝·學·德行이 兼備하지 않은 분이 없었으므로 그 該當欄에는 모두 記載하지 않았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와같은 未備한 問題에 대하여는 機會있는데로 修正해 나갈것을 約束드리면서 넓은 雅量으로 받아주시고 鞭撻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反面 譜牒에 依據하여 原稿作成을 進行시켜 나가다가 보니 그 譜牒內容에도 誤記와 矛盾된데가 發見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바로 本書를 엮음으로써 얻어진 貴重한 收穫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언젠가 새로히 譜牒을 刊行해야 할 時期가 온다면 반드시 是正되어야 할 問題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發見된 誤記中에서 가장 두드러진 一例를 든다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目錄에는 定獻公(係行)派의 進士公(克義)派로 되어 있으나 個人行蹟欄은 分明히 生員으로 記載되어 있었다는 事實입니다. 따라서 目錄에도 進士公아닌 生員公으로 修正되어야 當然했을 것입니다. 本書에서는 生員公으로 派別分類를 바로 잡아 두기로 했습니다.

이런 機會가 없었던들 全然 모르고 넘어갔었을 것이 아니냐고 생각했을 때 정말 多幸스러운 일로 여겼으며 하나의 보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제 古昌備放라는 한권의 冊이 完成되었습니다. 벅찬 마음 가라앉힐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本書의 編纂을 위하여 늘 걱정하시며 激勵와 鞭撻을 아끼지 않았셨던 三雲 孝鎭先生 蒼厓 舜東先生 두분이 完成된 古昌備放를 보지 못한채 幽明을 달리 하셨으니 恨스러운 마음 禁할 길이 없습니다. 두분의 靈前에 삼가 이 冊을 바치며 기리 冥福을 비는 바입니다.

끝으로 監修를 맡아 주신 松士 和鎭先生 그리고 編纂을 責任지신 八峰 基鎭先生 又軒 仁漢先生 晴軒 曾漢先生 峴山 儀東先生의 苦勞에 感謝드립니다. 특히 仁漢先生은 本書를 엮기 위해서 5年前부터 東奔西走하시면서 萬般의 準備와 進行을 도맡아 왔으며 그 隘路란 이루 形容할 수 없었음에도 不拘하고 모든 難關을 克服하여 始終一貫 끈덕지게 다듬어 올림으로써 오늘의 結實을 갖어오게 했습니다. 그 熱意와 努力에 대하여는 感歎을 禁할 수 없으며 거듭 讚辭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表題의 揮筆을 맡아서 本書를 더욱 빛나게 하신 樊溪 潤東先生께 謝意를 表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激勵와 聲援을 아끼지 않은 여러 僉宗께도 그 고마움을 傳해 드립니다.

또한 외람되게도 不肖 濟東이 編纂委員의 末座를 더럽히는데 그치지 않고 序文의 붓을 들게까지 된 것을 송구스럽게 여기며 여러 僉宗의 寬容을 바랄 뿐입니다.

이 古昌備放가 “나”의 歷史를 理解시키는 구실과 길잡이가 된다면 더 바랄나위 없는 榮光으로 생각하면서.....

西紀 1972年 12月 7日

素 林 金 濟 東 謹 識

區分		高麗朝				
派別	始祖 (宣平) 後	典農正公(得雨)	選軍公(呂重)	典農正公(得雨)	選軍公(呂重)	
尊系(父)		習敦 1世	習敦 1世	呂基 2世	呂重 2世	
諱(名)	習敦 1世	呂基 2世	呂重 2世	南秀 3世	堦 3世	
字號						
證						
文集及遺稿						
年譜						
韓國號	{ 生年月日 卒年月日					
西紀年代	{ 生 年 卒 年					
享年	年					
至今早時	年					
卑系(子)	呂基 呂重 2世	南秀 2世	堦 3世	熙 4世		
略	○ 公須副正 ○ 自始祖至府君其間世系見佚或云初未嘗佚 ○ 二男	○ 戶長 ○ 一男	○ 選軍別監 ○ 一男	○ 戶長正位 ○ 配安東曹氏 ○ 一男	○ 侍御史	
歷						